

[종합·해설]

공무원연금 개혁 순항할까

즉각 반발... '대형 갈등' 예고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에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정하면 서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직사회의 학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정부가 연금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팎으로부터 비판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왜 문제인가=공무원연금은 벌써 올해 6천7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만성적자가 심각하다. 이대로 가면 ▲ 2010년 2조1천430억원 ▲ 2020년 8조9천890억원 ▲ 2030년 18조100억원 ▲

2040년 24조150억원 등으로 적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수급연령 늦추고 수혜폭 '국민' 수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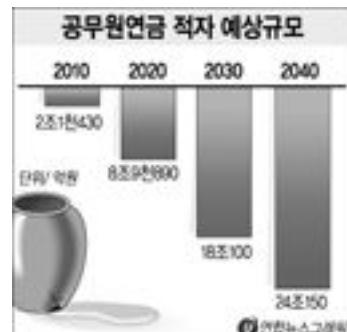
정년 연장엔 사회적 비판 여론 따가울 듯

는데 대체적인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자상태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선 현재의 공무원연금 수급체계를 손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 국민연금은 40년을 가입했을 때 가입기간 전체 월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는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33년 근속 공무원은 퇴직전 3년 월평균 소득의 76%, 30년 근속자는 70%를 각각 연금으로 받는다. 국민연금에 비해 수혜폭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다.

◇윤과 드러나는 개혁안=국민연금이 소득수준 대비 연금 수준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30~60%' 수준에서 '25~50%'로 낮추려는 데 맞춰 공무원연금도 소



6일 낮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회연금 개혁공작 규탄 대책위원회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각 단체 대표자들이 '연금개악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 여론 비등=공무원연금 수령 나이를 국민연금 수준에 맞춰 65세로 늦추는 방식에 대해선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공무원연금을 늘리는데 대해선 '제 밥그릇 쟁기기'라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안팎의 비판여론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은 연장하지 않는 대신 연금의 수급체계만 개선하는 방

법도 만만치 않아 연금 개혁은 '산 넘어 산'의 형국이다.

공무원노총은 6일 낮 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공무원노총간 공동의지를 통해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변양호·이강원씨가 외환銀 혐값 매각”

검, 오늘 종간 수사결과 발표

외환은행 혐값 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 단기 차익을 노린 혼란에 외환은행을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은행 혐값 매각 의혹 사건 종간 수사 결과를 7일 오전 10시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2003년 5월 하종선(구속) 변호사 소개로 스터브

리 론스타 코리아 전대표를 서울 강남의 모 식당에서 만나 외환은행 주식을 신주 4천원, 구주 5천원 미만으로 론스타에 넘기는 것에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변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10억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했지만 '매각 몽통' 규명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올 3월 국회 재경위의 고발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